

아이부터 외국인까지 온정 “손발 얼어도 마음은 훈훈”

광주 총장로우체국 앞 구세군 자원봉사(케틀메이트) 해보니

시작과 동시에 오들오들...따뜻한 음료 받으니 눈물 날뻔
6시까지 30여만원 모여...누적 모금액 지난해 대비 두배
24일까지 모금 “소외이웃 위해 자원봉사 참여 늘었으면”

“떨랑-떨랑-”
매년 겨울, 변화기에 울려 퍼지는 익숙한 종소리가 울해도 광주 구도심 최고의 변화기인 동구 ‘총장로우체국’ 앞에서 이어졌다.
17일 낮 12시 광주시 동구 총장로우체국 앞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구세군 냄비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구세군자선냄비 광주본부’의 협조를 얻어 4시간 동안 봉사를 한 광주일보 취재진은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서기 전, ‘구세군’이라고 적혀있는 새빨간 통 패딩을 입고 온몸을 꽂꽂 싸매었다. 매서운 찬바람을 견디며 한자리에 내리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세군 자원봉사는 ‘케틀메이트’로 불리며 2인 1조로 활동한다. 함께 모금 활동을 진행한 임정환(48) 사람은 모금에 앞서 종을 치는 법과 구호방법을 가르쳐 줬다.

종을 치는 것부터가 난관이였다. 너무 세게 치거나 자주 울리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피해 갈 수 있는 탓이다.

주의사항도 일러줬다. ‘불우이웃을 도우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우’라는 어원에 ‘신도 외면했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구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이크와 종을 받아 “주위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합니다. 이 순간에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도우시다”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지 10여분이 지나자 첫 온정이 손길에 나타났다.

6살 김도하 군이 꼬깃꼬깃 접힌 만원짜리 지폐를

고사리손에 쥐고 부모와 함께 구세군을 찾았다. 김군의 부모는 “아이에게 마음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에도 기부 행렬은 계속 이어졌다. 이호현(15) 군은 우체국 옆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계란빵을 사 먹고 받은 잔돈을 자선냄비에 넣었다. 이 군은 “추운 날씨에 계란빵조차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꿉친아들과 함께 총장로를 찾은 락미아(여·52)씨는 구세군 케틀메이트에게 따뜻한 두유 2병을 건네며 모금함에 정성을 담았다.

곽씨는 “매년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모든 시민들이 추운 겨울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며 웃어 보였다.

외국인의 도움의 손길도 있었다. 인도에서 온 리스톤 스와미나단(29)씨는 “인도를 비롯해 지구촌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며 외국지폐를 두번 접어 냄비에 넣었다. 모금행사는 오후 6시까지 이어졌고, 이날 자선냄비에는 약 30만원이 모였다.

올해 광주에는 3곳(총장로우체국, 유스퀘어 광장 등)에 자선냄비가 설치됐다. 지난 9일 시작된 구세군 자선냄비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된다. 다행히 올해는 지난 16일까지 약 605만원이 모금돼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305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구세군 측은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리에 사람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모금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금액은 늘었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케틀메이트 신



1일 케틀메이트로 나선 광주일보 민현기(오른쪽) 기자가 17일 오후 12시 광주시 동구 총장동 총장로우체국 앞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행사’를 체험하고 있다.

정자는 줄고 있다는 것이 구세군의 설명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케틀메이트를 희망하면 며칠씩 기다리고 대기순번까지 있었지만, 올해는 희망하면 3일 이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인 1조로 운영돼 맞지만, 최근에는 부족한 케틀메이트로 인해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다.

구세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케틀메이트가 줄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단순히 봉사 점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함께 노(老)-소(少)

광주 서구 소통사업 협약

광주시 서구는 지난 15일 어르신과 아이가 어울려 소통·교류하는 ‘함께 노(老)-소(少)’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세대 조부모와 3세대 손주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경로당을 일종의 마을 놀이터로 활용해 공예교실, 전통놀이 체험, 요리교실, 동네 청결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는 상무2동 쌍촌복지 경로당과 쌍촌복지 어린이집, 금호1동 금호시영 경로당과 금호원 어린이집이 각각 참여하기로 협약했다.

이들 어린이집의 6~7세 어린이 20여명이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딱지치기, 종이 목걸이 만들기, 미니 케이크 만들기, 공원 청소하기 등 프로그램을 함께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편히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GIST 개발 작곡 AI 음원 출시 대학생과 ‘스트레인저’ 협업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개발한 ‘작곡 인공지능(AI)’이 대학생 음악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음원을 출시했다.

GIST는 2016년 안창욱 교수팀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작곡 AI ‘이봄(EvoM: Evolutionary Music)’이 기획사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과는 최초로 음원을 내놓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소울(예명)’은 데뷔 싱글 곡인 ‘스트레인저(Stranger)’를 지난 16일부터 국내 음악 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

음원으로 공개된 ‘스트레인저(Stranger)’는 AI 작곡 플러그인 ‘뮤지아(MUSIA)’와 소울 본인이 공동 작곡한 곡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뮤지아’는 안 교수와 이끄는 AI 음악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CreativeMind)에서 이봄을 탑재해 만든 작곡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약 5분 만에 쉽고 빠르게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안창욱 교수는 “이번 음원 제작은 AI 작곡가와 인간의 실제적인 협업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며 “향후 다가를 초 메타버스 시대 거대 콘텐츠 시장에서 AI 기반 1인 창작·제작 서비스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철새 날면 바이러스 난다...이동 경로 예측해 막는다

전남도·환경부 분석 결과, 이동 경로·AI 발생지 일치
나주·영암·무안 등 ‘영산강 벨트’ 고위험지 설정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 전역을 휩쓸면서 방역 당국이 철새 위치 추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새 경로와 AI 발생지가 일치하는 등 철새 이동이 AI 확산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미리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예측해 방역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철새 개체 수·지역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겨울 철새는 지난해 같은 기간(28만4000마리)

에 걸친 8% 늘어난 30만 7000마리가 관찰됐다.

날이 추워지면서 철새 개체 수도 급증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이달 관측된 겨울 철새는 지난달(20만 6000마리)에 비해 무려 49%가 늘었다. 지난 10월(6만2000마리)에 비해 날씨가 추워지면서 관측된 철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지역별로는 이달 영암호에 12만4000마리가 관측돼 가장 많았고 고흥호(3만2000마리), 순천만(2만2000마리), 고천암호(1만4000마리) 등의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가창오리(15만5000마리), 큰기러기(2만7000마리), 청둥오리(2만7000마리), 흰뺨검둥오리(1만4000마리) 등이 관측됐다.

10월엔 큰기러기(1만3000마리)·괭이갈매기(9000마리)·흰뺨검둥오리(7000마리) 등의 순으로 많이 보이던 철새들이 11월엔 가창오리(7만1000마리)·청둥오리(4만3000마리)·흰뺨검둥오리(1만3000마리) 등이 더 관측됐다.

영암호는 11월부터 전남지역을 찾은 철새들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철새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는 10월엔 영암호(1만마리)·진도 군내간척지(5600마리)·강진만(4400마리) 등이었지만 11월에는 영암호(6만3000마리)·순천만(5만마리)·고천암호(1만마리)

등으로 옮겨고 있다.

이들 장소에 주로 머물던 철새들이 서식 환경이 좋은 영산강을 따라 옮겨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면서 ‘영산강 벨트’에 걸쳐 있는 나주·영암·무안·함평에서 AI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특히 고히고리가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영암호를 찾아오는 시기도 이맘때로, 자칫 기존 철새들과 고히고리 간 접촉으로 바이러스를 새로 퍼뜨릴 우려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

최근 전남을 찾아 AI 방역 현장을 둘러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조만간 찾아올 고히고리로 인한 감염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점을 감안, ‘영산강 벨트’를 끼고 밀집해 있는 가금류 사육 농장들을 고위험 지역 농가로 설정해 관리하는 한편, 서해안쪽 영광과 동부권인 보성 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